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매년 반복되는 일이지만 한 해가 저물어 가는 12월 즈음이 되면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밀려온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생성과 소멸의 과정이요 그렇게 수 천 년을 반복해 온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라지는 것들은 아쉽고 슬프며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은 벅차고 기쁘다. 우리에는 매일 맞이하는 밤과 낮처럼 그 둘 사이에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들의 균형이 흔들릴 때이다.

서울시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 근처 골목에는 오래된 동네 슈퍼가 있다. 정확하게는 '있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물건을 팔지 않고 낡은 간판만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나무 간판에는 하얀색 페인트로 쓴 '봉다리슈퍼'라는 이름이 아직도 선명하다. 원물이 많은 대

모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항가 주변이라 장사가 될 법도 하건만, 10여 년 전 바로 옆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이 작은 가게는 판매 물품을 조금씩 줄이더니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마지막으로 들렀을 때, 팔고 있는 품목으로는 생수가 유일했다. '봉다리슈퍼'는 대형 마트와 편의점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낡은 간판으로 마지막 호흡을 연명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동네의 작은 가게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도시의 공간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인류 문명의 힘으로 세운 도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새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다듬고 고쳐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넘어 도시 재생이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한 것도 그런 까닭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순간이고, 새롭게 조성된 매끄러운 편의 공간에 금방 익숙해지고 만다.

자본의 특징은 '탐식'이다. 서울의 사례로만 보자면, 홍대에서 삼청동으로, 가로수 길로, 서촌으로, 성수동으로, 끊임 없이 먹이를 찾아 이동한다. 현재로서는 이 포식자를 근본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나마 희망을 걸 수 있는 곳이 '공공'이다. 하지만 이것 역시 쉽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도 공공의 이름으로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이나 개인의 소유 개념을 넘어 '공유' (commons) 개념을 통한 새로운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공공의 공간'을 어떻게 '공유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마을 혹은 동네라는 이름의 지역에서 주민과 예술가 그리고 청년 등 다양한 주체들이 일상적으로 드나드는 공간의 경험을 막연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편리하고 기본 좋게 드나드는 공간일수록 자본이나 공공 등 소위 '주인'의 행세가 가장 적은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지난 가을 한 연출가와와의 대화에서 '연극인들(예술가들)은 공간을 잃는 일에 익숙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모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는 공공의 공간에서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하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공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의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 일종의 체념이자 현실에 대한 인정처럼 들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공간을 잃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나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잃는 일' 너머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할 것'이라는 다짐이나 태도다. 그 태도는 단순한 결심이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 낸 삶의 표현일 것이다.

시인 고정희는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동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어/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긴다' 중)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쇠락하고 사라지는 것들을 지켜볼 뿐이다. 그것은 참으로 쓸쓸한 일이다. 그렇지만 시인이 노래했듯이, 사라지는 것들이 남긴 그 여백에서 새로운 탄생을 기대한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에는 남북의 죽음이 아니라 창조와 생명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한다.

종교칼럼

산길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런 생각들이 머리를 짹 채우면서 가득이나 힘든 심신을 더 힘들게 한다.

골짜기 길을 갈 때는 마음이 밖으로 나가 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 그저 눈은 한 발자국 앞 발 디딤 곳을 도장 찍듯 내려다 보고, 귀로는 자신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오르다 보면, 어느새 정상에 다다른다. 힘들어 할 겨를이 없다. 마음을 온통 산을 오르는 행위에 집중하면 당연히 오르는 동안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허벅지 근육 부근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통증은 말 그대로 통증일 뿐이다. 통증과 힘들다는 느낌은 별개이다. 그 통증에 마음을 집중해 보면 힘들다는 생각은 거기에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물리적 통증이 힘들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무의식적인 연결 고리가 끊어진 것이다.

능선 위로 난 길에는 비록 정상에 오르지 않았으나 정상에 오른 것이나 진배없는 풍경이 있다. 사방천지가 넓게 트여 시야를 가득 채우는 넓디 넓은 하늘이 있다. 하늘 아래에서 제아무리 크고 넓은 것이라도 하늘을 따를 수는 없는 법이다. 아래로 굽어치는 산과 멀리 보이는 인간 문명의 흔적들. 능선 길에서의 결

음은 여유롭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세상은 이리도 넓는데...'

다시 눈을 아래로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세상은 저리도 작는데, 저리도 작은 곳 어디에서 그렇게도 많은 교통과 회한과 번뇌가 나오는 걸일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정상은 한참 멀었다. 아직 반도 채 올라오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 아래를 내려다 보면 분명히 상당히 많이 올라 온 것 같은데 금방 갈 것 같은 정상은 달아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전히 멀리 있다. 멋진 풍광에 대한 기대 만큼 풍광을 가린 나무들 때문에 기분은 상하고 애가 닳는다. 게다가 오르막과 내리막을 반복하는 능선길은 사람을 금세 지치게 한다. 어느새 마음이 지치고 멍달아 몸도 더 힘들어 진다. 능선 길은 희로애락으로 점철되어 있다.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두려움도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다. 육망에 이끌려 일회성비하는 중생들의 삶이 담겼다.

산하리를 휘감아 가는 길에서는 잔잔한 고독을 느낀다. 산하리에 난 길은 산 정상으로 가기 위해 만들어진 길이 아니다. 대개 정상에 도달할 목적으로 산을 오르기 때문에 산하리를 휘감아 가는 길

엔 아무래도 인적이 드물다. 그리고 길도 한 명이 겨우 다닐 정도로 좁은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씩 비스듬히 비추는 햇살에 길가 나뭇가지들이 반짝인다. 길모퉁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오직 나만을 반겨줄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은 설렘에 잔잔한 파문이 인다. 하지만 모퉁이를 돌면 언제나 인적 없는 외로운 길. 심한 오르막이나 내리막도 없이 그저 평탄하지만 한 길을 따라 가다 보면 시선은 자연스럽게 산에서 살아가는 온갖 것들과 그 위에서 반짝이며 춤추는 햇살들에 멈추게 된다. 가끔 갈대길이나 오기도 한다. 마음을 여수선하게 하는 고민도 잠시. 인적 없는 한적한 길이 다시 나를 반긴다. 산하리로 난 길은 소위 부족(少欲知足)의 삶. 청빈한 은둔자의 삶이다.

굳이 작고한 최희준 씨의 노래 가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인생은 나그네길이다. "언젠가 좋아지겠지"하는 막연한 기대에 의지하여 무작정 걸어가는 것이 인생길이다. 산길, 찻길, 오솔길, 선택로... 많은 길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은 역시 인생길이다. 모든 인생은 길 위에서 시작되어 길 위에서 끝난다.

진정한 메세나 정신 '그냥 사랑'을 실천했던 한 인간



한희원  
서화화가

임춘평 박사는 모든 대가나 명예를 생각하지 않는 진정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했다. 박사의 삶은 남의 아픈 어려움을 보고서도 미동도 하지 않는 열음같이 차가운 감정을 산산이 부수고 뒤흔들어 놓는다. 그래서 박사의 지난한 삶의 행로는 더욱 소중하다.

기업이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활동을 메세나 운동이라 한다. 로마 아우구스투스 황제 시절의 정치가였던 마에케나스가 당대의 대사인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를 후원한 것이 효시가 되었다. 마에케나스의 프랑시스 발음이 '메세나'다. 1400년대에 와서는 이탈리아 피렌체 공화국에서 상업을 통해 재력을 얻게 된 메디치 가문이 막대한 사재를 통해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기베르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군주론'을 지은 마키아벨리 등을 지원하게 되어 메세나 운동의 효시적인 상징이 되었다.

이후 메세나가 지금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1966년 미국 체이스 맨해튼 은행의 회장이었던 데이비드 록펠러가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데서 시작되었고, 각국으로 확산되었다. 1994년 4월 한국에

서도 메세나협의회가 발족되어 18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필자가 메세나 운동을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세나 운동이 지역에서 힘들게 작가 생활을 하는 대다수의 작가들에게 후원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메세나 운동은 그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나 무명의 작가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박사가 실천했던 예술가와 같이 호흡하고 부대끼며 함께했던 것과는 방향이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사는 소외된 예술가와 어려운 학생들과 어려움을 같이 나누었다. 그림을 모아서 가치가 오르는 자본의 의미가 아닌 예술가의 눈물과 슬픔까지 끌어안은 삶이었다.

진료가 끝나면 금남로 가톨릭센터 뒤 성안식당, 영흥식당에서 막걸리 내음 풍기는 낡은 탁자에 앉아 미술인들과 술잔을 주고받았다. 박사의 이야기는 좌중을 휘감았고 박사가 권한 술잔은 단순한 술잔이 아니었다. 어떤 이념이나 이론이 아닌 '그냥 사랑'의 모습이 박사가 사는 모습이었다. 박사가 지금 우리 곁에 있으면 이런 모임 자체도 사랑했을 것이

다. 그만큼 박사의 삶과 의식은 자유스럽고 예술적이었다. 신화처럼 내려온 수많은 행적들은 그동안 언론이나 세간의 이야기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구구절절 되뇌일 필요는 없었다. 그렇지만 박사의 삶의 행적을 박제된 형태로 남길 수는 없다. 그만큼 이 시대가 삭막하기 때문이다.

임춘평 박사의 삶의 모습이 감동으로 전해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자기의 몸을 태워 주위를 빛으로 밝히는 촛불의 의미가 임춘평 박사의 정신을 통해 정립되고 전해져야 한다. 그것이 박사를 사랑하는 살아 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리라고 율조였던 도스토옙스키의 말처럼 세상의 율조를 진정히 사랑으로 살았던 임춘평 박사. 53년의 짧은 생애동안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다 정작 어머니를 생각만큼 돌보지 못한 자책감으로 머릿결이 다 빠져 버린 눈물의 소유자. 박사의 삶이 척박한 시대에 다시 한 번 촛불로 타오르길 기원한다. 오는 29일 오후 2시 무등산 자락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광주사랑, 임춘평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작은 출발이 되기를.

社說

'목포발 파리행 열차' 우리 모두의 꿈이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및 연결 공사 착공식이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열렸다. 착공식에는 남북한 양쪽의 고위 인사와 신헌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중국, 러시아, 몽골 인사들과 아태 지역 개발과 관련된 국제기구 대표들도 포함돼 있어 남북 열차 및 도로 연결이 단순히 한반도에 그치지 않고 유라시아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여 주었다.

이날 행사는 70년간 끊어졌던 한반도의 혈맥을 잇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미가 깊다. 대북 제재로 인해 당사 공사에 들어갈 수 없는 착수식 성격의 행사였지만 혈맥을 잇는 디딤돌을 놓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대북 제재가 해제돼 언제든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착공식에 앞서 남북은 북한의 철도와 도로 시설에 대한 공동 조사를 벌였다. 결과는 내년 1-2월에 나올 예정이다. 남북은 공동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에 어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이 전제라고는 하지만 남북 철도와 도로를 잇는 작업이 눈앞에 다가온 것만은 확실하다.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의 의미는 한반도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나 유라시아로 뻗어 나가는 활로를 마련했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통일 시대' 한반도 개발도 'H축'으로 이뤄질 것이다. 호남선이 경의선과 연결되고 경부선이 동해선을 타고 중국, 몽골, 러시아를 거쳐 파리까지 가는 유라시아 철도망이 완성된다는 것이다. 우리 지역 입장에서 유라시아 철도망의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도로도 국도1호선 기점이 목포인차 착공식이 더 반갑게 다가온다.

올해는 남북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돼 70년 만에 평화의 혈맥을 잇는 주춧돌을 놓았다. 내년에는 북미 대화 재개와 김정은 담방이 성사돼 한반도 비핵화 진전으로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꿈이 실현되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청정 해역 후대에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최근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의 내장에서 500ml 용량 패트병이 발견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전남에서도 해마다 쏟아지는 해양 쓰레기 때문에 어장이 황폐화하고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전남도 자체 용역 결과 전남 지역에서는 2017년 기준 해양쓰레기 2만6713t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2만1059t을 수거했다. 수거율이 79%나 되지만 그동안 쌓인 해양쓰레기는 8만7482t으로 여전히 많다. 발생 원인은 호수로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 2%, 페어망-어구 등 해상에서 발생한 쓰레기 51%, 중국 등 외국에서 흘러온 쓰레기가 47%로 조사됐다. 막대한 양의 해양 쓰레기가 넘치고 있지만 페어망-어구 등 수중 및 침적 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자치구 간 책임 소재 불명, 해양쓰레기 처리 시설 인프라 부족 등 문제점은 여전하다.

전남도가 오는 2022년까지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해 주목된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 팀을 구성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효율적인 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단계적으로 쓰레기 수매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수거 중심에서 수거와 감시·관리까지 기능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전남도는 정책의 성패를 가를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일회성 정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해양 환경에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꾸리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으로 해양 쓰레기 제로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수산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 내고 청정 해역을 후대에 길이 물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無等鼓

또 한 해가 저문다. 새해에 대한 희망보다 저무는 해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아마도 나이 들 때문이리라. 누군가는 환희로, 누군가는 아픔으로 기억될 2018년.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돌아보면 올 한 해도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입장과 단일 팀 경기를 보며 한반도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알았고, 호주오픈에서 정현이 조코비치를 꺾을 땐 테니스의 강렬한 매력에 푹 빠지기도 했다. 롤러코스 트롤 탄 러시아 월드컵

우리 모두 챔피언

드립 등 각종 경기 현장에서 수없이 듣고 또 들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몇 가지 실수도 했지만 이겨냈어요. 패배자를 위한 시간은 없어요. 끝까지 도전하고 결국 승리할 거예요." 스포츠는 선수뿐만 아니라 팬과 관중들 모두가 주인공이다. 그러나 올 한 해 경기장에서 혹은 TV 앞에서 스포츠에 열광한 모든 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크게 다르지 않다. "위 아 더 챔피언, 마이 프린트." /유재관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b>光州日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金日煥</b>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